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国際連合教育科学
文化機関



The Architectural Work of Le Corbusier,
an Outstanding Contribution to the Modern Movement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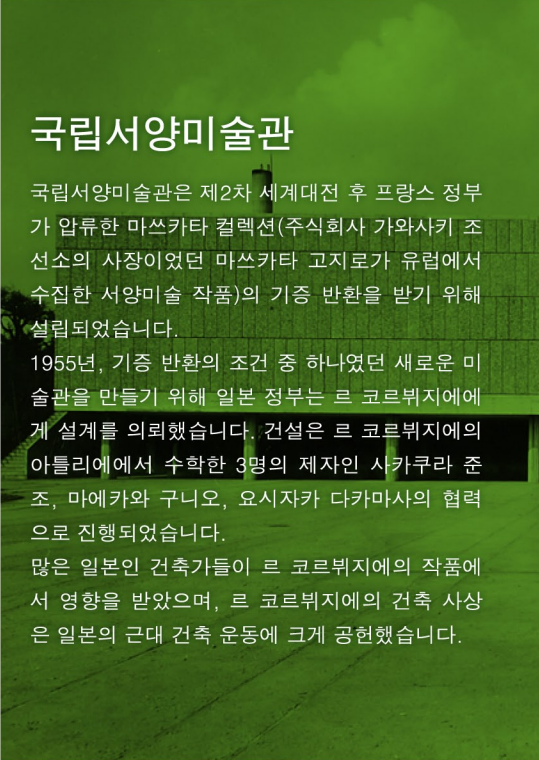
ル・コルビュジェの建築作品
—近代建築運動への顕著な貢献—
世界遺産登録年:2016年

르 코르뷔지에

Le Corbusier(1887~1965 본명 샤를 에두아르 잔느레 그리)는 시계 제조로 유명한 스위스의 라 쇼드폰에서 태어났습니다.

스위스의 장식미술 학교를 졸업한 후 빈, 베를린, 파리에서 건축과 공예, 예술 분야의 새로운 운동을 접하게 됩니다. 건축은 오귀스트 페레와 피터 베렌스에게서 단기간 사사한 것 외에는 혼자 힘으로 공부했습니다.

건축을 설계할 때는 연구를 거듭한 끝에 프로토타입(기본형)을 만든 후, 실제로 건설될 부지와 환경에 맞게 몇 번이고 다시 고안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약한 르 코르뷔지에의 합리적, 기능적이면서도 명쾌한 디자인 원리를 추구해 20세기의 건축 및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립서양미술관

국립서양미술관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 정부가 압류한 마쓰카타 컬렉션(주식회사 가와사키 조선소의 사장이었던 마쓰카타 고지로가 유럽에서 수집한 서양미술 작품)의 기증 반환을 받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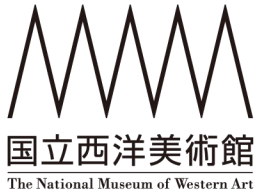
1955년, 기증 반환의 조건 중 하나였던 새로운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일본 정부는 르 코르뷔지에에게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건설은 르 코르뷔지에의 아틀리에에서 수학한 3명의 제자인 사카쿠라 준조, 마에카와 구니오, 요시자카 다카마사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일본인 건축가들이 르 코르뷔지에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 사상은 일본의 근대 건축 운동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2017 국립서양미술관 | 디자인: 오오카 히로노리 사무소



국립서양미술관에는 회화와 조각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술관의 건축 그 자체입니다. 1959년에 완성된 국립서양미술관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건축가 중 한 명인 르 코르뷔지에가 설계했습니다. '근대 건축의 5요소'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점, '무한 성장 미술관'의 사상을 구현했다는 점, 또 일본의 근대 건축 운동에 크게 공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세계 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19세기 홀

르 코르뷔지에가 이름을 붙인 이 홀은 미술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의 중심에 배치되었습니다. 천장까지 탁 트인 공간이 2층과 2.5층, 그리고 여러 곳으로 이어져 있는 복잡한 공간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삼각형 천창

북쪽으로 난 채광창을 통해 포근한 자연광이 쏟아져 내립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과 들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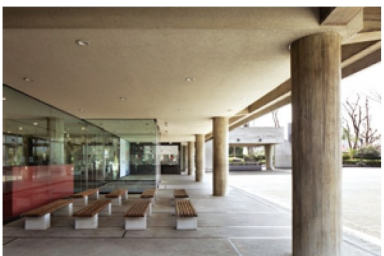
섬잣나무라는 나무 형틀에 콘크리트를 부어 만들어, 아름다운 나뭇결이 나타납니다.

경사로(슬로프)

르 코르뷔지에가 많은 건축 작품에 사용한 경사로는, 올라가다 보면 점차 경치가 바뀝니다. 기둥 안쪽으로 보였다 말았다 하는 회화 작품과 풍경이 달라지는 삼각형 모양의 천장 등과 같이 변화하는 공간을 여유롭게 즐기며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닥 조명

인공광으로 작품을 아래에서 비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로티

르 코르뷔지에가 제창한 '근대 건축의 5요소'와 '무한 성장 미술관'에 포함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외벽 패널

옥돌이 박힌 외벽은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지 않고, 떼어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패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모두 새로운 패널로 교환되었습니다)

2층 전시실

19세기 홀을 감싸듯 배치된 전시실은 천장의 높낮이나 곳곳에 끊어진 벽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공간의 확장과 변화를 즐기며 돌아볼 수 있습니다.

발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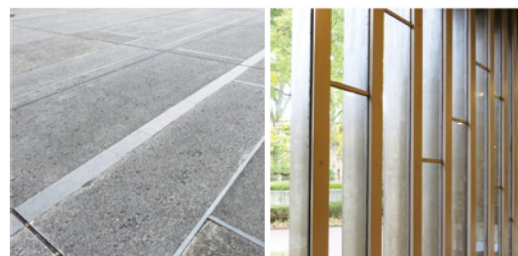
19세기 홀을 마주하고 설치된 두 곳의 발코니에서는 홀을 내려다볼 수 있고 또 하나의 발코니 안쪽으로는 시야가 탁 트여 있어, 건물 내부의 풍부한 공간 구성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2.5층(조명 갤러리)

옥상에서 들어온 자연광과 조명기구가 만들어낸 인공광이 2층 전시실 및 19세기 홀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든 회랑 모양의 작은 방입니다. (현재는 인공광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5층(발코니)

폭이 좁은 계단이 붙어 있는 발코니 모양의 작은 방입니다. 회의실이나 작은 크기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비공개입니다)



모듈러(외부)

뮤지엄 숲이나 식당의 창 바깥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 루버(가는 평판)는 모듈러에 기초한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뜰과 외벽 패널 디자인 또한 모듈러로 리드미컬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모듈러(실내)

르 코르뷔지에의 인체의 치수를 기반으로 해서 건축 각처를 설계했습니다. 기둥은 635cm 간격으로 균등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2층 전시실의 낮은 천장, 2.5층의 천장 높이는 226cm, 발코니의 난간 높이는 113cm 등, 건물 대부분이 모듈러 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7개국에 걸친 세계유산

2016년 7월 17일, 제40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국립서양미술관을 포함한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 작품-근대 건축 운동에 대한 현저한 공헌-'이 세계유산 목록에 기재되었습니다. 7개국의 17개 자산으로 구성된 자산이 3대륙에 걸쳐 일괄적으로 등록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자산들은 19세기 이전의 양식을 가진 건축을 비판하며 새로운 사회가 바라는 목소리에 응한 건축을 만들고자 하는 '근대 건축 운동'의 역사와 그 세계적인 영향을 증명하는 것이며, 또 20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인간적 요구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작은 집



스위스 1923

최소한의 필요를 요소로 해서 거주자의 요구에 정확하게 부응하는 '최소한 주택'이라는 새로운 건축적 표현의 형태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규격화된 주택의 한 예이기도 합니다.

라 로슈 저택



프랑스 1923

저택 안의 경사로와 발코니를 걷다 보면 경치와 색채가 바뀌는 유동적인 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시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던 '근대 건축의 5요소'가 처음으로 적용된 작품입니다.

귀에즈 주택



벨기에 1926

자유로운 형태와 색채라는 새로운 건축적 언어(요소 및 기법)를 혁신적으로 표현한 최초의 작품 중 하나로, 벨기에 안팎으로 이 발상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보아 저택과 정원사의 집



프랑스 1928

'근대 건축의 5요소' 모두를 구현한 작품입니다.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올리토 공동주거



프랑스 1931

'근대 건축의 5요소'를 집합주택에 적용한 예로, 유리를 사용해 외부공간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든 작품입니다. 건설 후에는 르 코르뷔지에가 본인이 이곳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생-디에 공장



프랑스 1946

공장이 현대인의 사회적·인간적 요구에 맞추기 시작함과 동시에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체험할 수 있는 건물의 발상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롱상 성당



프랑스 1950

조각적 건축의 새로운 형태를 확립했으며, 세계의 교회 건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찬디가르 국회의사당 단지



인도 1952

르 코르뷔지에가 제창한 도시의 발상("빛나는 도시" "아테네 헌장")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인도 반도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 작품입니다.

피르미니 문화센터



프랑스 1955

도시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의 일부로 구상해 실현에 옮긴 작품입니다.

페삭 주거단지



프랑스 1924

'최소한 주택'을 집합주택에 적용한 예로, 5m²의 유닛을 다양한 형태로 조합한 조립화·규격화의 면모에서 보더라도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센호프 공동주택



독일 1927

콘크리트 도량을 사용해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나타내며, 내부의 방 배치를 변경할 수 있는 주택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콜라테 공동주거



스위스 1930

조립화·규격화된 계획·구조의 발상을 드러내며 콘크리트를 대신해 창문과 벽 패널 등에 스틸 프레임을 넣은 첫 작품입니다.

유니테 다비타시옹



프랑스 1945

개인과 집단의 균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주거 방식의 대표적인 프로토타입입니다. 거친 표면의 노출 콘크리트로 마무리한 작품입니다.

퀴퀴세 박사 주택



아르헨티나 1949

제창 이후 몇십 년이나 흐른 '근대 건축의 5요소'가 다시 적용된 작품입니다. 남미 건축에 근본적인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카바농



프랑스 1951

모듈러를 기반으로 해 규격화한 '최소한 주택'의 특징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라 투레트 수도원



프랑스 1953

'근대 건축의 5가지 요소'의 발상을 더욱 심층화해 설계한 건물입니다.

국립서양미술관



일본 1955

돔이노 시스템 1914

철근 콘크리트제 기둥과 마루판으로 건물의 하중을 견디게 하고, 계단으로 상하층을 이어주는 단순한 구조로 건물을 만드는 발상입니다. 돌과 벽돌을 쌓아 올린 후 벽을 세워서 건물을 지탱하던 예전의 건축 방식과는 달리, 기둥이 마루를 지탱하게 하면 외벽과 간막이벽(내벽)은 떼었다 붙였다 하거나 옮길 수도 있게 되어 있어 자유롭게 방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조립화와 치수의 규격화를 통해 양산화의 발상을 보여줬습니다.



근대 건축의 5요소 1926-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 재료와 건설 방법 등의 기술적인 측면과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구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생각으로 근대 건축을 성립할 수 있는 요소를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필로티

기둥으로 건물을 띄우기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사람도 바람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기본 좋은 공간입니다.



2 옥상 테라스

눈이나 비를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 구배 지붕으로 덮여 있던 옛 건물과는 달리, 철근 콘크리트로 된 수평 모양의 지붕에 식물을 심어 풍요로운 옥상 공간을 탄생시켰습니다.



3 자유로운 평면

기둥으로 마루를 지탱하게 하면 간막이벽(내벽)은 떼었다 붙였다 혹은 옮길 수도 있게 되어 자유롭게 방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4 수평창

벽면의 가로폭에 꼭 차게 들어간 창문을 통해 방 구성구석까지 균일하게 빛이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5 자유로운 파사드

건물의 하중이 기둥으로 지탱되며 외벽은 패널 및 유리로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무한 성장 미술관(미술관 계획) 1929-

르 코르뷔지에의 1929년부터 타게할 때까지 3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미술관 계획을 계속 구상했습니다.

<문다네움 계획, 세계 미술관>(1929년)은 첫 미술관 계획으로, 가장 높은 층의 중심에서 나선 모양으로 전시실을 내려오는 피라미드 형태의 건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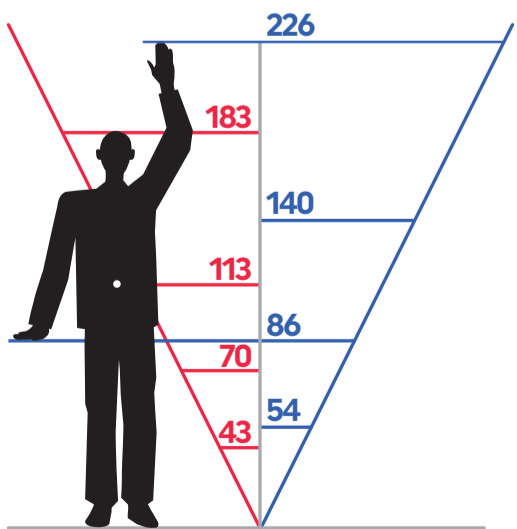
<현대 예술 미술관>(1931년)은 당시 문제가 되었던 컬렉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중심핵이라고 할 수 있는 방을 만들고 작품의 증가와 함께 나선 모양으로 바깥쪽을 향해 전시실을 증축해 나간다는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필로티 위에 정사각형의 전시실을 배치했는데, 이것이 바로 네모난 나선형 미술관의 시작이었습니다.

건설 방법이 쉬웠던 덕분에 그 후에도 다양한 전시에서 이용할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거듭한 끝에 <필리프빌 시의 미술관 계획안>(1939년)에서 '무한 성장 미술관'이라고 이름 붙인 미술관의 프로토타입(기본형)을 발표했습니다.

국립서양미술관 본관은 '무한 성장 미술관'의 기본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되었고, 지금도 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 1 필로티를 통해 중앙 홀로 들어가, 거기서 시작되는 네모난 나선형 전시실들 돌아봄.
- 2 근형의 2.5층이 설치되어 있음.
- 3 전시실을 나누는 벽의 길이에 따라 방의 크기를 바꾸거나 시야를 탁 트이게 해서 다양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모듈러



르 코르뷔지에의 인간의 몸에 맞는 건축을 지향하며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척도인 '모듈러'를 고안했습니다. 남성의 신장 183cm, 배꼽까지의 높이 113cm의 비율이 황금비율 1.618:1이 되는 것과 113cm의 2배로 이 남성이 손을 뻗은 높이인 226cm를 기준으로 잡아 붉은색과 파란색 2종류의 척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듈러의 수치를 이용하거나 가깝게 쓰면 건축에 통일감 및 리듬이 생겨납니다.

'무한 성장 미술관'은 '무한 발전 미술관', '근대 건축의 5요소'는 '근대 건축의 5원칙'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